

평등의 씨앗 심어 '인류 평화'의 나무로 키워야

종교를 어떤으로 간주해온 공산주의의 본 고장 러시아에서 진리를 구하고자 인도 다람살라를 찾은 이들이 있다. 이번 법회는 지난 8월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불교지원 정책 공시 이후 열린 행사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러시아인 대다수는 가톨릭의 한 분파인 그리스정교를 신앙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 역시 한 때 러시아의 국교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번 방문이 갑작스럽지만은 않다. 러시아 불교는 13대 달라이 라마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으며 티베트불교 가운데 겐룩파 성향의 신앙형태를 지닌다.

러시아 불자를 대상으로 한 달라이 라마의 이번 법회에는 러시아와 몽고를 필두로 투와, 부르야티아, 칼메키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쿠스 자치공화국 불자를 비롯 내·외국인 2700여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11월 24~26일 3일간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열렸으며 총카파 대사의 <연기찬탄계송> <삼중요도(三重要道)>를 주제로 했다. 다음은 달라이 라마의 법문 요지.



을 만났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나누며 얻은 결론은 '사람이란 내면의 평화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도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내면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제가 불교를 말할 때 과학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식이 생각하는 것과 외부의 물질들을 근대 과학으로 입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의식' 측면에서 내면의 평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행 동기로 바른 행위를 한다면 미래 또한 밝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사회주의는 독재로 인해 사회 내부의 갈등을 형성했습니다.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항상 이성을 통해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비심은 타인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비폭력적인 문제해결 방식입니다. 러시아의 독재는 이미 지난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민족은 차별되고 있습니다. 자비심이란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는 인류의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견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값진 사람의 삶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가 형성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종교와 무관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회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지성을 변화시켜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성을 바로 알고 실천하고자 할 때 '자비심'이 요구됩니다.

티베트 망명 이후 50년 간 저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달라이 라마(사진 왼쪽)의 법문을 경청하는 러시아 불자들.

중생계의 나는 무아로서 항상 하고 개별적으로 주체하는 내가 아닌 오온(五蘊: 물질적 요소, 느낌, 표상, 의지작용, 의식)에 의지한 나입니다.

<연기찬탄계송>은 총카파 대사께서 스무 살 가량에 중관사상을 배우며 법무아(法無我)를 논한 것입니다. 집착의 아집(我執)을 멸하는 방법에 대해 설한 이 계송은 무지에서 비롯된 전도된 의식을 다룹니다. 대상을 인지하는 명료한 의식의 상태는 법집(法執)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옹수보살은 '법제찬탄품'에서 "의식이란 대상을 인지하는 명료함 그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분노는 대치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의 '멸제(滅諦)'는 번뇌 즉 무명을 자비로 없앴을 때

입니다. 그 자체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단지 이름을 붙여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연기가 전도되지 않기 위해서 공성(空性)이며 공하기 때문에 바로 연기(緣起)입니다. 어떤 존재하는 것일지라도 자성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르보살은 <보성론>에서 "본연이 공하기에 어떠한 것도 둘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전제로서 말할 수 없다. 바른 것을 바르게 볼 때 연기로서 논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생과 후생을 인정하건 하지 않건 간에 이생에서 개인이 자기 종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랑과 자비심을 발현해야 합니다. 삼선제(三善繼)를 이뤄 태어나는 것은 무아 사상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선한 인(因)을 심으면 선한 과(果)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집을 없애야만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무아를 깨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성제를 통해 연기의 진여를 알 때 비로소 멸제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성정정(自性淨淨)이라고 합니다. 객체의 허물들이 본래 청정한 것을 잠시 가리고 있었기에 본래 청정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해탈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바른 사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소지(所知)의 허물을 풀기 위한 바탕은 보리심입니다. 대상의 실제 모습을 바로 알아 번뇌의 허물을 완전히 끊은 심왕(心王)입니다. 만약 바탕에 보리심이 없다면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없습니다. 대상을 보는 능취와 소취로서 둘이 다르지 않다는 공을 깨우친 지혜가 진제의 보리심이 되기까지는 보리심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제 보리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를 잘 알아야 하며 굳건한 삼귀의를 필요로 합니다. 삼보 가운데 법보는 멸제를 말합니다. 멸제는 신심만으로는 이해

불가능합니다. 멸제를 알기 위해서는 공을 깨우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총카파 대사는 스승들을 예찬하며 <삼중요도>는 시작합니다. 윤회하는 생애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해탈을 원하는 마음을 내기에 존귀합니다. 무량한 중생을 해탈에 이끄는 이들만이 이타심의 용기를 내어 상사부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함축한다면 깨달음의 길은 선천(先賢)을 향한 입문으로서 <삼중요도>에서 말하는 청정한 염리심(厭離心)과 공을 깨우친 지혜입니다.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해탈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염리심입니다. 마음의 허물을 청정히 할 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오로지 바랍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겠다는 굳건한 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혼란은 사람들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값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번뇌를 끊고자 하는 마음을 깊게 생각하거나 죽음의 무상(無常)에 깊이 빠지다 보면 몸과 마음에 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제(苦諦)를 알고 집제(集諦)의 인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인다면 해탈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생의 집착을 없애고 죽음의 무상을 생각하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거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속임 없는 엄의 과보로서 선한 행위를 실천하며 거듭 사유해야 합니다.

'나'는 오온에 의지해서 성립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나, 몸과 마음에 의지해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처럼 나라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라는 무아입니다. 나에게 시작과 끝이 있을까요? 불교는 나의 시작을 찾고자 할 때 '나의 몸과 마음에 시작이 있는가?'를 사유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와 같이 의식의 흐름에 접근했을 때 그 시작을 찾을 수 없으며 '빅뱅(Big Bang)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작은 물질과 공간이 약 150억 년 전 거대한 폭발을 통해 우주가 되었다고 보는 이론'의 폭발 또한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부처의 모든 것을 아는 지혜란 현재 우리의 거친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섯 바라밀을 행하더라도 부처를 이룰 수 없고 공을 깨우친 지혜만으로도 부처를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반드시 정광명(淨光明: 깨달음의 빛, 미세한 의식을 밝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 법집(法執)의 습을 끊을 때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낮팸으로 항상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바로 염리심이 생겨납니다. 청정한 발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없는 깨달음인 원만한 행복의 인은 없습니다. 업과 거지 없음을 볼 때 연기의 거지 없음을 볼 것입니다. 항상 '의해서' 존재하기에 자성으로서 공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성으로서 공함을 아십시오. 모든 법이 자성으로 공하다는 자성을 알 때 인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인도 다람살라 = 자연속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다람살라 남갈사원에서 3일간 2700여 명에 법문 러시아 대통령 불교지원 정책 공시후 첫 법회 '관심'

의 청정함을 말합니다. '멸제'를 얻고자 하는 수행으로서의 '도제(道諦)'가 있습니다. 나날이 수행으로 습을 들일 때 이 모든 것은 이뤄집니다. <인행론>은 "불행을 원치 않고 불행에서 헤어나고자 하지만 그 속에 빠져들게 되고 행위를 원하나 그와 거꾸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 까닭이 '무명'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불행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연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지하는 어떤 것도 그 모두 실재가 없습니다. 대상에 실재가 없다는 것은 연기에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론> 24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성(自性)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해서' 생겨나, '의해서' 이뤄진 것

#연기자성의 쏘 보는 순간 보리심 싹 틔우
부처님의 법은 '무아(無我)'로서 자애와 자비심을 중요시합니다. 항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제(集諦)와 고제(苦諦)로 윤회하는

일주일 철야 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계 철야 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절대오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펼칠 때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였고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 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어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은 백봉선생님의 육성법문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위한 교재로 하고 선생님의 도반이시자 제자이신 보림사 회주 목산스님께서 지도해 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09년 12월 28일(월) 오후 8시부터 2010년 1월 3일(일)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약수길 17-1호)
- 회 비 : 일반 9만원
- 접수 및 문의 : 010-6332-4096
- 준비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 하차 정릉 청수장행 143, 162, 1012, 1013 → 두우아파트 하차 (돈암역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목산 합장
보림회 서울지부장 청봉 합장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방한용털신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특무명털신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5mm 단위)
• 색상 : 회색, 자연색

부츠(여)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사계절단화

• 풍산동 99%
• 재입식 광장

조각무명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특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지압갈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20,000원

친환경적이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실용신안등록출원중, 제20-2009-0015109호

기능성 점이식 방식 (유대용)

크스님예불/좌선용 방식 - 색상 : 황금색, 회색, 적색, 밤색
- 원단 : 벨벳 라스타 기구용
- 원료 : 상형 우레탄 (철재 프레임)

인도/좌선용 방식

▶ 폼을 때 / 大=150,000₩
1200x800x80mm
▶ 폼을 때 / 小=58,000₩
890x540x65mm
▶ 접었을 때
500x700x80mm
350x540x65mm

기능성 점이식 방식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체형에 맞게 등받이를 4단계로 조절이되며 일차로 퍼먼 방식이되고
- 특히, 108배 절 운동도 가능하게 설계되었으며
- 또한, 점이면 공간활용과 보관이 용이합니다.

상형우레탄 제작과정, 평균부품들 모두 100% 국산제품 사용

방식 속에 사용된 통우레탄 국산제품

연꽃 방식

▶ 접었을 때 / 350x540x65mm / 56,000₩
▶ 폼을 때 / 880x540x65mm

3단 방식

▶ 접었을 때 / 300x540x130mm = 39,000₩
▶ 폼을 때 / 900x540x45mm

대리점 모집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83-4
TEL : 031-594-7488
FAX : 031-594-2054
농협 : 204074-52-079679 김경기

◆ 동안거 결재중 법공양 올리실 사부대중님의 전화상담 받습니다 ◆